

전통문화 진흥·확산 거점기반 마련 주력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한식·공예·전통놀이·전통문화 등 5개 분야 35개 세부사업 추진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이 기존의 관광산업 중심에서 더 나아가 전주 흑석골 한지관 등 전통한지의 제조 및 복원으로 외연 확장과 더불어 '전통문화 진흥·확산'을 위한 거점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한국전통문화전당은 24일 4층 세미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8년 전주수공예 거점 복합플랫폼인 '전주공예제품전시관'과, 2020년 국내 최초 전통놀이 전용 공간인 '우리놀이터 마루달'을 개관한 데 이어 2022년 4월 전통한지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새롭게 '전주전년한지관' 개관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올해 ▲한지문화산업진흥 ▲한식문화진흥 ▲공예문화산업진흥 ▲전통놀이문화진흥 ▲전통문화진흥전략 등 5개 분야 35개 세부사업을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전주한지의 경쟁력 강화와 확산을 목표로 전당은 올해 전통한지 계승을 체계화하고 한지문화 거점화의 완성도를 높여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올 4월 '전주전년한지관' 개관을 통해 전주한지 계승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한지문화 확산을 위한 거점으로 완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0년 3월 착공한 전주전년한지관은 총 83억 원이 투입돼 지상 2층에 연면적 3,763㎡ 규모로, 제조공간, 체험·전수공간, 전시·역사·문화공간 등을 갖추게 된다. 또한 한지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는 한지 관련, 다양한 R&D(연구개발)가 추진된다. 각종 R&D사업을 통해 전주한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 전통한지 생산기업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간다는 복안이다.

두번째로 한식의 진흥과 확산을 위해 올해 전당은 음식문화 거점공간으로 특화시키기 위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고, 한식문화 교육·체험·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망이다. 온라인 플랫폼 '전주음식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음식



한국전통문화전당 전경.

식문화를 소개하고, 국비사업 확보를 통해 국가적 한식 문화 확산을 위한 거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지속성을 담보한 한식문화 진흥을 위해서도 한식문화 콘텐츠, 학술 콘텐츠 개발, 음식문화연구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 한식사업의 고도화에 심혈을 기울일 전망이다. 이 밖에도 음식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전주음식쿠김클래스, 지역농산물로 만드는 맛있는 김치학교, 인문학으로 만나는 음식이야기 등 다양한 체험, 특강 등도 운영키로 했다.

세번째로는 수공예 분야와 관련하여 전당은 전통공예 전문가 육성과 미래 공예가 발굴을 목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공예장인학교', 맞춤형 공예작가 역량강화 컨설팅, 초등학교 1인1전공예(한문화공예교실) 등의 사업을 운영한다. 지역 수공예인들의 활동 지원을 위해서도 다양한 기획전시, 박람회 참가 기회를 부여하고 공예작가 스토리텔링 개발, 그리고 협업 아트상품 개발에 적극 나선다.

네번째로, 전통놀이문화진흥분야는 지난 2020년 10월 전국 최초로 설립된 전통놀이 전용공간 '우리놀이터 마루달'을 주축으로 전통놀이를 통해 세대 간 연결고리를 만들고 전통문화를 재발견하는 거점공간으로써의 역할을 강화

해 나갈 방침이다. 전국 방방곡곡 전통놀이 대회, 한옥마을 문화시설과 연계한 전통놀이 체험, 우리놀이 가족캠프 등을 통해 놀이문화의 확산, 그리고 관광 상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는 복안. 뿐만 아니라 전통놀이 기록화 사업 등 전통놀이가 연구도 집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전당 공간을 중심으로 한식, 한지, 전통놀이 등 다양한 체험은 물론 공연장 상주단체, 지역의 뮤지션과 함께하는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통문화 기술 연구와 산업을 위해 정부 부처의 다양한 공모사업에 지원, 국가예산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新) 전통문화지원사업 발굴의 일환으로 한복 교육 보급화, 그리고 다양한 한복 관련,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나간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김선태 원장은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전당의 다양한 활동을 다시 재정비해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를 새롭게 도약하는 기틀로 다져갈 계획"이라며 "무엇보다도 전당의 다양한 전통문화 콘텐츠가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나아가 세계 속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는 한해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부패하지 않는 권력을 선택하려면... '권력의 심리학'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국제정치학과 부교수이자 정치 컨설턴트인 브라이언 클라스 박사는 10여 년간 벨라루스, 영국, 코트디부아르, 태국, 튀니지, 호주 등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백 명의 최고위 지도자를 인터뷰했다. 그들은 대개 막대한 권력을 진인하게 휘두른 괴물이었다. 왜 권력을 권이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실망시키는 것일까.

'권력의 심리학'(웅진지식하우스)은 500건 이상의 인터뷰와 인간 행동에 관한 최신 이론을 토대로 어떤 사람, 어떤 시스템이 더 쉽게 권력을 손에 넣고 부패하는지 밝혀낸다.

뉴욕시에 머무르는 유엔(UN) 대사들은 한때 법 위에 군림했다. 외교관 면책특권으로 불법 주차를 일삼았고 1997년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 UN 외교관 차량의 불법 주차 딱지 발행 수는 무려 15만 회에 달했다. 하루 80회 이상, 미납 과태료는 1800만 달러에 달했고 보다 못한 뉴욕 시장은 '삼진 아웃' 규칙을 시행해 불법 주차의 시대

를 끝냈다. 앞다투어 주차위반을 해대던 외교관들은 규칙 시행 하루 만에 불법 주차를 완전히 그만뒀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다. 스웨덴, 노르웨이, 일본 등에서 온 외교관들은 법 시행 전에도 미납된 주차 딱지가 없었다. 반면 부패 문화로 악명 높은 쿠웨이트 외교관들의 주차 위반 건수는 인당 평균 249회에 달했는데, 시행 후에는 0.15회로 줄어들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다. 부패한 문화가 부패한 권력자를 만들어낸다는 점, 시스템이 부패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책은 작고 평평했던 인간 사회가 크고 복잡한 위계질서로 나아가는 지점에서 출발해, 사이코패스적 성향의 개인이 조작과 위협으로 권력을 손에 넣는 과정, 문화적 배경이 개인과 국가 시스템의 부패에 미치는 영향, 잘못된 권력 부여가 촉발한 주요 사건 등 권력의 본질을 다양한 측면에서 면밀히 살펴본다. /뉴시스



고창군은 24일 오후 2층 상황실에서 '스마트 판소리 박물관 구축사업 중간운영 보고회'를 개최했다.

인공지능 판소리 큐레이션 AR 전시관람

고창 판소리박물관 자체 개발 중인 모바일앱 통해 이용토록 제작중

고창 판소리박물관에 인공지능과 증강현실 등 최첨단 ICT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콘텐츠가 선보일 전망이다.

24일 고창군은 이날 오후 2층 상황실에서 '스마트 판소리 박물관 구축사업 중간운영 보고회'가 열렸다.

스마트판소리박물관 구축사업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추진됐다.

'인공지능 판소리 큐레이션 AR 전시관람 시스템'이 판소리박물관이 자체 개발중인 모바일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중이다.

모바일앱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증강현실(AR) 체험 ▲전시해설 ▲판소리사실 영인본 검색 ▲판소리 고음반 음원 서비스 등으로 구성돼 있다. 관람객들은 앱을 통해 박물관 전시를 증강현실로 체험하고 전시해설과 판소리

를 스마트 기기로 들을 수 있다. 증강현실(AR)체험에서는 판소리박물관 전시실에 동리 신재효선생이 등장해 인공지능 대화를 통해 박물관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판소리사실 영인본 검색은 2019년부터 연차적으로 발간해 오고 있는 '동리 신재효 자료총서' 판소리 사실 영인본 68량 27권을 검색해 볼 수 있도록했다.

판소리 고음반 음원 서비스는 박물관에 소장된 고음반의 음원과 영상을 실시간으로 즐겨 볼 수 있도록 했다.

고창군은 "판소리 증흥을 위한 다양한 전시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판소리박물관을 즐겨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전시문화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문화재단-부안교육지원청, 문화예술사업 연계협력 업무협약

(재)부안군문화재단(이사장 권익현)과 전라북도 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황은숙)은 24일 부안군청 중회의실에서 부안군 문화예술사업 연계협력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권익현 이사장과 황은숙 교육장 등 양 기관 대표자 및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및 문화예술교육 연계협력,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활동 지원 및 협력사업 공동 개발, 부안 청소년 문화감수성 함양을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 기타 양 기관 우호증진 및 상호협력에 가능한 문화사업 발굴 및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개발해 시행하기로 했다. 권익현 부안군문화재단 이사장은 "부안군문

화재단과 부안교육지원청이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게 돼 매우 기쁘다"며 "양 기관의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부안의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꿈을 키워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은숙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부안군문화재단과 협력을 통해 부안지역 학교들의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 학생들이 예술적 감성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